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혁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제정협

새 보 란

Saeboram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7년 01월 282호

(02)796-4280 www.kappd.or.kr



신년사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정신개혁운동 실행하자”

▶ 2P



특집I

제 12기 지회장 직무교육
포토리뷰

▶ 12P



특집II

2017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13P



국제

호주 점자지폐 발행
시각장애인 소년의 소원

▶ 16P

지장협 제12기 시·군·구 지회장 직무교육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의 구심점 되자”

지회 운영과 업무능력 강화 중점



▲지장협이 제12기 시·군·구 지회장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지역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장애인지도자들이 직무교육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복지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지난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제12기 시·군·구지회장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

시했다.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먼저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인천·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제주 지역의 지회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1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전북·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장협 중앙회에서는 김광환 중앙회장의 ‘지장협 역사와 이해’, 이종성 사무총장의 ‘지역사회 내 장애인단체의 역할’, 홍현근 편의증진국장의 ‘편의센터 운영관리’, 염민호 대외협력국장의 ‘대외협력 및 홍보’, 김영근 조직시설국장의 ‘조직관리 및 실무’와 ‘비영리단체의 회계관리’ 등 업무능력 강화에 중점

을 뒤 교육했다.

이밖에도 홍세욱 변호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계천 경기 북부지사장의 ‘고용장려금제도 안내’, 손희삼 노무사의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 길잡이’, 이현실 강사의 ‘리더를 말한다’라는 주제의 리더십 강의도 이어졌

다.

한편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제12기 시·군·구지회장들에게 “여러분들은 각 지역 지체장애인 대표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의 구심점이 되어 장애인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장애계 신년인사회 개최 ‘우리의 여정이 바로 보상이다’

■ 새해 연대와 화합 다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 1월 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7년 장애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우리의 여정이 바로 보상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장애인단체장과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 각 당 국회의원 등 내빈을 포함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장애인단체장들은 새해 장애계의 희망찬 출발을 알리며 연대와 화합을 다짐했다.

이날 참석한 장애인단체장들은 새해 장애계의 희망찬 출발을 알리며 연대와 화합을 다짐했다.



▲한국장총과 장총련이 공동으로 2017년 장애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사

새 시대 열어가는 정신개혁운동 ‘우리 먼저 실행하자!’

대망의 2017년 새해 아침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 가족의 가정에 건강과 영위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창립 30년을 보내고 새해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30년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지난간 30년 역사를 돌아보니 장애인 운동을 펼친 1세대가

이룬 업적이 실로 대단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현재 장애인계의 모습과 위상이 세워지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장애인 운동의 제단 위에 뿌려진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천대와 멸시받던 시선을 향해서 저항하며 투쟁하고 심지어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쯤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장애인을 불쌍하게 보고 자선을 베풀어주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

보입니다. 때문에 장애인을 대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우리 사회 속에는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편견의 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 담겨 있는 이질감(異質感)이 사라지는 그 시점이 바로 장애인 복지의 완성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빙공영사(憑公營私)’라는 자자성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공공(公共)의 일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利益)을 꾀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라고 봅니다. 공공의 목적에 앞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권 개입이 가져온 심각한 폐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회비용의 손실을 떠나서 이념과 정체성 등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뼈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애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제가 회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우리협회는 ‘클린

(clean) 지장협’을 앞세웠고 지금까지 그 원칙을 변함없이 견지(堅持)하였습니다. 이는 중요한 덕목으로 이 시대의 우리 사회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장애인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도 공공의 목적에만 충실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공공의 목적에 앞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권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존립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외형과 명분, 체면은 충분히 세워왔다고 봅니다. 지장협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면서 겉치레와 형식을 벗어던지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는 옛 모습을 벗고 새로운 장애인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정신개혁운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가까이 불편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원칙을 존중하는 문화를 세워야 합니다. 공정하

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도록 장애인들이 먼저 앞장서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주장하고 선택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고 인정받는 새로운 기풍을 우리 사회에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강조해야 할 점은 ‘철저한 봉사자의 자세’입니다. 주어진 자리나 지키는 모습은 철저히 배척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열악하고 어려운 우리의 동료들을 위해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이들을 섬기고 만드는 모습이 하루하루 쌓여갈 때면 언젠가 그 열매가 달리고 이 같은 노력이 우리 사회에서 재평가될 시점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정신문화를 창달하는 일에 앞장서서 힘써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2017년 새해 아침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 광 환 배상

“장애인이 사회발전의 주역이 돼야” 지장협, 창립 30주년 기념 오찬식 개최



▲지장협은 지난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오찬식을 개최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지

난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프로젝트실에서 사·도

협회장 및 중앙회 이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

년 기념 오찬식을 개최했다.

한편 이번 오찬식은 창립 30

주년에 맞는 의미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광환 중앙회장은 “척박한 환경에서 장애인복지를 이끌어 온 초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지장협 지도자들이 강화된 리더십으로 무장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NPO단체의 모범이 되어 사회발전을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지장협은 30년 전인 1986년 12월 27일 롯데호텔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매년 주요 임원이 참여하는 작은 기념식을 가져 왔다.



2017 신년사 福

존경하는 '지장협'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은 지난해 '국정농단'이라는 커다란 충격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 구현에 대한 갈망의 몸부림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가득 품은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장애인당사자 최대조직이며 장애인복지 발전을 선도해온 우리 지장협은 창립 30주년의 해를 마감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지원회 30년사'를 발간하였으며, '인물사'가 마무리 되어 곧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12기 지회장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되었고, 올 상반기에는 지장협을 이끌어 갈 지도자를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장협은 지난 30년의 역사 속에서 초기일관 장애인 권익을 대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장애인 지도자 중에서 자신의 책무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탐하고 장애인의 이름으로 권력을 누리려 한 부끄러운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장애인당사자들은 이러한 후안무치의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시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탐하거나 사리사욕의 방편으로 지장협을 이용하려는 세력은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또 지장협 근처에 얼씬거릴 수 없도록 우리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야 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지장협은 흔들림 없이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새로운 30년을 위해 재도약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장애인복지에 몸 바친 선배들이 세워놓은 초심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 김광환 중앙회장을 중심으로 17개 시·도 협회장, 새로 출범하는 12기 지회장, 모든 회원 및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장협은 우리 장애인당사자의 '희망의 동반자'입니다. 함께 행복한 우리, 올 한해 지장협 모든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지원회
손영호 협회장

사랑하는 장애인동지 및 가족 여러분!

정유년(丁酉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정(丁)이 들어간 해로, 붉은 닭의 해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닭은 많은 알을 품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또한 덕을 지닌 새'라고 믿어왔다고 합니다. 2017년 정유년의 의미처럼, 붉게 타오르는 새해 일출을 바라보며 금년은 우리 모두에게 풍요롭고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난해는 '한국지체장애인지원회 30년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30년사에 나와 있던 우리협회의 역할이 한국 복지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였는지, 앞으로도 우리 협

회가 미래 한국 복지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재조명하는 밑거름으로 생각하고 저희 부산 협회도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임할 것을 결의해 봅니다.

동녘은 밝기 전에 가장 어둡고 물은 끓기 전에 가장 요란하듯이 지금 우리의 복지도 내일을 준비하는 단계인 시점에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숙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장애인 동지 및 가족 여러분!

고(故) 상국 장기철 초대 회장님께서 인권을 박탈당하며 소외와 무시 속에 떨시 당하는 과거 어느 찻집에서 당신이 받은 설움이 여기 동지들을 모이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함께 하였기에 오늘 주역이 되어 복지 발전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부디 그 뜻이 되새기지 않도록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세시오계(世是五計)와 오멸(汚蔑)을 생각하고 다짐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원하며 함께 하는 모든 장애인동지 및 장애인가족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지원회
김광표 협회장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지나고 새벽을 깨우는 닭의 기운찬 울음소리처럼 희망찬 2017년 정유년의 해가 새로이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온 한국지체장애인지원회의 모든 임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협회의 2016년은 참으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전국지체장애인지원교육대회'를 주관하며 동시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5년 최우수협회 수상에 이어 2016년 우수협회라는 값진 상을 받았습니다. 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2연패를 달성하였고, 2016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서 대구경북지역 중 유일하게 '활동지원 서비스 품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대구협회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구협회는 2017년 슬로건인 "This is the moment"를 가슴 속에 되새겨봅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여 올해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지체장애인지원회와 장애인을 위해 더더욱 노력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대구협회가 제일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2017년에는 소망하

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지원회
김창환 협회장

새날이 움을 알리는 붉은 닭과 함께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신년이 과일이 익어가는 과정이었다면 정유년은 열매가 익고 수확하는 상태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했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多事多難)하였고 마치 압축 같은 동굴을 통과하는 것처럼 지치고 힘든 일이 유독 빈번하게 일어나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겹게 보낸 한해였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한국지체장애인지원회 창립 30주년이라는 장엄한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100년의 큰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원년이기도 한 올해는 참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협회 설립자인 고(故) 장기철 회장님과 선배님들께서 일궈 놓은 고귀한 역사

를 지키고 보존함은 물론, 나아가 미래를 향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첫걸음을 내딛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후세에 어떠한 역사를 남겨줄 수 있을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갖게 합니다. 금년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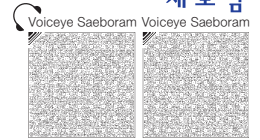
여러분! 우리는 이런 패일수록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야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현안에 묻혀 장애인복지정책의 동반자로서 때로는 선명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올 해에는 제12기 시·군·구 지회장 선임을 시작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산적해 있는 장애인 관련 현안과제를 해결하도록 힘써 정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인천시협회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8천여명의 선수와 가족이 참가하는 '2017년 전국지체장애인지원교육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심적 부담도 있지만 협회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을 갖고 최선의 노력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서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고 힘찬 새해의 붉은 태양처럼 가슴속 뜨거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정유년(丁酉年)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지원회
임순봉 협회장



2017 신년사 福

새해 인사드립니다.

철이 바뀌어도, 해가 바뀌어도 광주 무등산이 포근한 어머니의 품 그대로일 수 있는 것은 늘 그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국정이 중단되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저급한 정부일지라도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고품격의 선량하고 현명한 국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부의 홀대, 장애유형간의 장장(障障)갈등, 장애인 사업별 이기주의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오늘날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의 주역으로서 일

역을 담당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당사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30돌을 맞은 한국지체장애인의회의의 공도 적지 않았다고 감히 자평해 봅니다.

하지만 과거 30년에 만족하고 안주할 수만은 없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조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부양의무제 폐지 투쟁,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의 자립전환계획 수립,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등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만만찮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창립 31주년을 맞은 정유년!

광주지체장애인협회 모든 임직원들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와 함께 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

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가족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최남규 협회장

2017년 정유년의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닭의 힘찬 울음소리처럼 올 한 해도 지장협 모든 가족의 가정과 일터에 사랑과 열정이 넘치고,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높여 가는 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발 더 다가서는 화합

의 장이 되도록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능력 있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신규 일자리 발굴과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모두가 더불어 가는 행복한 대전협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박태규 협회장

존경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깃들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는 항상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장애인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발전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큰 성과를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쓰며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유년 한해, 우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회가 모두 원만한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는 우리 장애인 가족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지나간 것을 그리워하며 아름답게 회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하는 사람이야말로 비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비전을 만드는 길에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은 소수 영웅의 강력한 지도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수많은 성실한 일꾼들의 크고 작은 추진력이 맞

물려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우리사회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의 힘찬 도약을 지원하며, 올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장애인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애인 가족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잘 듣고 장애인가족들과 함께 실천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상보상생(相補相生)의 마음으로 우리 장애인 가족 모두가 함께 도우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김광환 중앙회장의 2017년 신년사의 말씀처럼 우리 세종시 협회도 '정신개혁운동'에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가까이 들뜬으로 나아가겠다는 용기를 갖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도록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철저한 봉사자의 자세'의 강조에

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주어진 자리나 지키는 모습은 철저히 배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협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가족의 힘과 결속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정신문화를 창달하는 일에 함께 달려 나아가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 평온하고, 적극적인 진취적인 기상을 만사에 펼쳐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지체장애인협회

김경철 협회장

지장협 가족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로 선언과 깨달음을 의미하며, 더 넓은 의미로 새로운 세상의 시작, 위인의 탄생 의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2016년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연약했던 부분을 강하게 세워 2017년에는 우리 지장협 가족 모두 다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가 두 단계 점프(Jump)할 수 있는 삶의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배려와 소통」입니다.

우리 지장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당사자 단체로서

가장 잘 묻히고 단결하는 저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장협의 가장 큰 자랑이요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 묻히고 단결하는 저력이 30년이란 세월을 흘러 현재의 우리 지장협을 만든 소중한 원동력입니다.

이 저력을 바탕으로 첫 번째,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두 번째, 조직의 발전을 위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배려와 소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지장협의 30년, 100년이 흐르는 역사 속에서 큰 나무들이 가득한 울창한 숲이 될 것입니다. 이 숲은 우리 장애인당사자들이 힘들고 지칠 때 쉬어가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울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홀로 숲을 이룰 수 없듯이 2017년

한해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며 단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장애인당사자들이 기대 쉬어갈 수 있는 '울창한 숲, 지장협의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김홍수 협회장



새 보 란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지난 2016년에는 김광환 중앙회장이 평소 즐겨하던 말씀인 '수처작주 임처개진(隨主作處 立處皆眞)'의 의미를 되새겨 매 순간 협회의 주인 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협회 경영에 임하는 기본 자세로 삼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경기도협회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11기 지회장들이 회생과 봉사로 임기를 다 하셨습니다. 그 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협회가 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함과 더불어, 다시 제12기 새로운 임원들을 맞이한 올해 2017년은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함을 느낍니다.

극세척도(克世拓道)란 과거로 지나갈 현재의 어려움과 문제를 바로 살피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역사는 후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비단 우리 협회뿐 아니라 최근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들의 당면과제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불안정하거나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회약자 특히, 장애인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사회공동체의 연대 의식이 붕괴되면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해지고 각자의 삶을 돌보느라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시민의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장협 설립 30주년을 맞은 작금의 국가 및 복지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협회의 발전과 보나나 회원들의 삶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장애 현장의 고충은 늘어날 것이고, 욕구는 다양할 것이며, 사각지대는 늘어날 것입니다.

회원들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잘 담아내는 조직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 바르지 못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경영능력을 연마하고, 조직이

순리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를 통해 뿌리에서부터 건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이 어둠을 뚫고 새벽을 알리는 닭의 기상을 담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위치에서 경기도협회는 더욱 더 정진할 것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와 산하 조직들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협회장



대망의 정유년(丁酉年) 새해 새 시대,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2016년의 묵은해를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 벅차오르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한 해 저와 우리 충북협회에 보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바랍니다.

돌아보면 2016년 한 해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어 모든 국민들이 일어설 힘을 잃었던 적도 있었지만 수많은 촛불을 통하여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고 권위주의와 부패로 오염되었던 낡은 과

거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7년 정유년은 붉은 해라고 합니다. 닭 벼슬은 학문을 나타내며 날카로운 벼슬은 무예를 나타냅니다. 닭의 성품은 적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과 먹이를 나누어 먹는 인내, 때를 잘 맞추는 습관으로 신뢰를 잘 쌓는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무거운 마음을 털어 내고 연부력강(年富力強)한 닭처럼 힘차게, 그러나 인내를 갖고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함께 힘을 모아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두가 지나간 일은 반드시 참조하여 잘못된 것은 반영하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여 앞날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회를 비롯하여 모든 협회들이 항상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다른 사람의 장점은 서로 칭찬하고

반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활하여 지난해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성숙한 의식의 개개인이 되어 장애인 정책의 완숙미를 만들어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 뜻깊고 득직한 열매를 키워가며, 사심 없이 온 누리를 비추는 햇볕처럼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모든 사람들이 작은 영웅들이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

송기성 협회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이 희망을 전명하는 정유년(丁酉年)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되면 지난해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아쉬워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곤 합니다만 지난 한해는 참으로 큰일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20대 총선을 치렀고, 알파고와 이세돌이 펼치는 세기의 바둑 대국이 있었는가 하면, 김영란 법이 새롭게 시행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수면 위로 떠올라 장애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불합리와 부조리의 원인을 알게 되어 전 국민이 분노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비통하지만 이렇듯 한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운명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기회는 찾는 자와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2017년은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든 한해가 될 거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 원동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2017년 새롭게 임명된 제12기 전국 230개 시·군·구 지회장님들과 힘을 모아 지난해 하지 못한 일들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새기는 그 소망과 각오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소임을 다하며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장애인지도자 여러분!

올해는 정유년, 닭의 해입니다. 아침에는 누구나 일

어나지만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라면 닭의 해에 걸맞도록 새벽을 깨우는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동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견인차 역할을 다하며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여러분께서도 2017년 정유년 새해는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고 더 큰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이건희 협회장



새로운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찬 2017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지장협은 창립 30주년을 뒤로하고 장애인 동지 여러분과 새 희망의 꿈을 안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우리 전북협회는 장애인 인권위원의 실질적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80여명의 전라북도장애인인권위원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100만 캠페인 구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장비와 불편한 몸 때문에 체험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텐트를 비롯한 기본 장비를 구입하여 장애인자녀체험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소통과 자립심 향상, 나아가 사회통합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지장협은 회원 수가 많은 우리만의 단체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갈등해소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NGO 단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장애인복지를 외치지 않고 민생 현장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단계로서 조직의 내실화를 다지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광환 중앙회장이 이야기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공익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지장협 조직원으로서의 자세와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며, 이것이 지장협의 미래입니다.

닭의 울음소리만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어둠을 딛고 일어나 아침을 보려는 자만이 가장 먼저 환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임직원들은 밝은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할 것입니다. 부지런한 어머니가 차려주신 푸짐한

아침상처럼 알차고 따뜻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눈높이에서 절실하게 묻고 살피고 실질을 추구하는 절문근사(切問近思)의 자세로 협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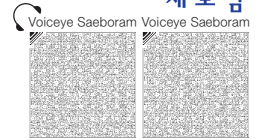
장애인 가족 여러분!

정유년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형곤 협회장





2017 신년사 福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가족 여러분!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丁酉年) 그 첫 새벽을 여는 활기찬 닭의 울음 소리처럼 힘찬 도약을 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6년은 우리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30년사도 발간되었고,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에는 이를 기념하는 대대적인 기념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국내 최대 장애인당사자 단체로

자리매김한 지장협의 지난 30년 역사와 전통, 그리고 위업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고 돌아 왔습니다.

2017년!

우리의 발걸음은 지장협의 50년, 100년 역사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 시작점에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나란히 서 있는 오늘을 꼭 기억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올 한해 전담협회 역시 늘 그래왔듯 전남 거주 장애인들의 실질적 복지와 인권과 권리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소통과 화합, 감동과 활력이 확산되어 협회의 발전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장재곤 협회장



“비전을 새롭게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더욱 발전하는 경북협회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애인동지 여러분!

2017년 새해!! 새 출발을 다짐하며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경북협회를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은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경북협회 임직원 모두와 회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2016년이 경북협회의 발전방안을 구상하고 큰 밑그림을 그린 한 해였다면 2017년에는 제12기 선임 지회장님들과 함께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여 새로운 성과 창출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한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2017년은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과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서 비전을 새롭게 세우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와 함께 새해에 경북협회의 지향점은 ‘회원’이며 실천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입니다. 새해 우리 경북협회는 교육, 문화, 안전, 복지, 일자리 등 시·군·지회 각 분야에서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1년이란 시간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변화와 혁신 마인드를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

아 두려움 없는 열정으로 새로운 한해를 시작합니다.

아무쪼록 새해의 다짐들이 2017년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조심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며, 그 조심의 열정으로 다시 또 힘차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가정마다 번창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영식 협회장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은 황금닭의 해입니다. 『육갑(六甲)』의 저자 마의천은 말합니다. “닭은 캄캄한 어둠을 뚫고 이른 새벽을 알리는 효계보명(曉鷄報鳴)의 대명사”라고.

닭은 한 시대를 시작하는 서곡(序曲)의 주인공입니다. 정유년 원단(元旦), 닭처럼, 새벽을 밝히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협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남지장협은 ‘구체화된 협회 비전’과 ‘가시적인 성과 달성’이라는 목표의 양 날개로 비상하고자 합니다.

2017년 경남지장협은 회원들간의 화합을 중시하며 뜨거운 동지애를 확립시키고, 장애인 회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발굴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경남지장협은 회원들이 품고 있는 꿈과 희망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6월 중, 경남지장협은 ‘2017 대한민국 장애인 카누축제’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사천시 삼천포 대교 인근입니다. 이 축제는 스포츠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회원들 간의 화합을 이루어낼 대역사(大役事)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지장협 전체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한편 2017년 올해는 이른바 대선(大選) 시즌입니다.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심각히 논의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장애인계는 장애인당사자가 진정으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니다. 중국의 문호 루쉰(魯迅)은 말했습니다. “원래 길은 없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셋 걸음으로써 길이 만들어졌다.”

경남지장협은 대선정국을 맞이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진출을 위한 정치세력화를 꾀함으로써 장애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장애인 권익’이라는 길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김덕선 협회장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협회장으로서 그동안 협회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회원이 중심이 되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더 나은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회 운영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눈높이에 맞게 찾아 접근함과 동시에 회원이 주

인이라는 당연함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회원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협회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시행하여, 한층 질 높은 서비스로 회원들 곁에 다가가 회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 직원 모두가 공손한 마음가짐으로 회원들과 소통이 잡히는 협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협회 임원에 대해서도 시대를 함께하는 조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교육으로 동질성을 느끼고, 협업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시너지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나해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신 모든 일이 이뤄지는 풍요로운 2017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형중 협회장



“장애인과 지하철에서 공존해요”

교통약자 지하철 탑승 ‘공존 프로젝트’ 진행

“매일 아침 전쟁입니다. 1시간이나 일찍 나와도 지하철을 못 타서 자꾸 지각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어떻게 출근해야 하나요?”

“뒤에 있던 사람이 ‘사람이 먼저 타야지’라고 말하며 새치기를 하고 지하철을 타더라고요.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사람도 아니라는 건가요?”

“내려야 하는 역에서 비켜주지 않아 휠체어를 돌릴 수가 없었어요. 목적지에서 하차 못 하는 일이 다반사죠.”

지하철은 하루 평균 7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고 서민들의 출퇴근 수단이다. 하지만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은 평균 5~6대를 놓치고서야 겨우 탑승하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서울메트로

와 업무협약을 맺고 1월부터 3월 말까지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한 지하철 탑승을 위한 시민 실천 ‘공존(共Zone)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지하철 탑승을 위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17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했다. 또 서울메트로 외에 서울시 의회와 한국장애인재단도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프로젝트의 핵심인 ‘공존(共Zone)’은 ‘함께’라는 의미의 한자 共(공)과 ‘구역’ Zone의 합성어다. 지하철 객차에서 한 걸음씩만 서로 배려해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출입문 바로 앞 구역을 비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1월부터 서울 지하철 2, 3, 4

호선 총 20량의 객차 내부 출입문과 바닥, 휠체어석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하고 관련 영상을 서울메트로 전 역사에 송출하고 있다. 영상에는 가수 강원래 씨가 영상 내레이션에 참여해 지하철 승객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전동휠체어 이용자 이희정 씨는 “지하철 바닥에 붙은 ‘공존 스티커’가 확대되어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비장애인 승객들이 먼저 다 타면 휠체어 이용자는 지하철에 탑승할 수 없지만, 휠체어 이용자가 먼저 타면 다른 승객들도 모두 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장총 이병돈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교통약자들도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 조성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교통약자의 지하철 탑승을 위한 ‘공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청각장애인 영상통화 앱 개발 착수

씨토크, 단계 최소화해 원활한 소통 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지난 1월 2일 씨토크는 스마트폰을 통해 청각장애인 수화 통역센터 등과 연결, 다자간 통화가 가능한 ‘아이씨토크’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아이씨토크는 모바일인터넷 전화(mVoIP) 기능을 활용, 청각장애인도 언제 어디서나 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씨토크는 다산콜센터와 손말

이음센터, 공공기관과 지자체, 도시철도 정보센터 등에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와 통화회선을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청각장애인은 영상전화기로 수화 통역센터에 연결, 대화하려는 사람과 3자 통화방식으로 소통한다. 기존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통화가 가능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아이씨토크는 일반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언

제 어디서나 수화 통역센터에 연결할 수 있다. 070 개별 번호를 부여해 청각장애인이 신속하게 다자간 통화를 하도록 지원한다.

씨토크 관계자는 “기존 영상통화 앱으로 다자간 통화 연결하는 단계를 최소화했다”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설치한 씨토크 전용 영상전화기(씨스테이션)와도 연결할 수 있다.

‘별별생활체육센터’ 개소 발달장애인 위한 체육교실 운영

매뉴얼 제작 등 활동 기대

한국자폐인사랑협회(회장 김용직)는 1월 11일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별별생활체육센터(서울시 성동구 위치, 이하 별별센터)를 개소했다.

별별센터 이용대상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주요 프로그램은 기초체력증진을 위한 PT, GX, 뉴스포츠 등이며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매뉴얼 제작보급 등의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별별센터는 GKL 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는 발달장애인 생활체육센터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장애인 체력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들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그룹PT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별별체육센터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책 마련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취약계층을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정의했다. 또 국가 안전

관리기본계획 속에 취약계층의 안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표준화된 위기관리 지침을 연구 개발할 것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한국장애인연맹(한국 DPI)은 성명서를 내고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국민안전처는 이번 법안을 반영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바를 밝혔다.

평창 동계패럴림픽 무장애 관광도시 위해 정부부처 등 협약 체결

문체부·행자부·국토부·조직위·강원도·한국관광공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참여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부처 및 단체장 등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기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무장애 관광도시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1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또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개최 도시의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기술 지원과 자원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각 정부부처의 협조사항으로 먼저 행정자치부는 경기장 주변 주요

관광지의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18억 5천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디자인(Universal Design)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참가선수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수송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차량 구입비 28억원(139대)과 저상버스 차량구입비 18억원(44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밖에 보건복지부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분야를 지원한다.

평창조직위원회와 강원도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접근성 기준 및 국내 관계 법령을 반영해 대회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숙박, 선수촌, 음식, 관광,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같이 신속 및 새 단장한 민간시설과 공공화장실에 대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성구석 앱'과

'투어강원 앱'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위는 관광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책자를 제작하고 해외 무장애 관광사이트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은 관계 부처와 개최도시, 조직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관련 단체가 패럴림픽대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

했다.

또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은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확대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평창조직위원회,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주요 내용

구분	분야(개소)	점검내용
대회 시설	경기장(4)	장애인주차구역, 관람석,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오버레이 포함)
	대회관련 시설(3)	장애인주차구역, 관람석,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숙박(14)	장애인주차장, 경사로, 승강기, 접근가능객실
	수송	특장버스(46대), 저상버스(44대), 장애인콜택시(139대)
개회 도시 편의 시설	전통음식점(277)	경사로, 입식테이블
	음식점(566)	장애인주차장,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입식테이블
	숙박업(141)	장애인주차장,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장애인 전용객실
	관광시설(26)	장애인주차장,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안전바
	공중화장실(민간 12)	장애인주차장,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보온시설
	공중화장실(공설 50)	장애인주차장,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보온시설
	교통약자 편의증진	정류장 접근성 개선
	접근성지도(관광앱)	제작 중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 확대 지원금 2배 수준 상향조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7년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 확대를 지속 검토하고, 지원금액도 상향조정 (가구당 평균 10.8만원 지원 → 11.6만원)한다고 밝혔다.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단가 상향을 검토하고(연 3만 가구), 연료전환(연탄 → 가스 석유)시 보일러 교체를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

요금 할인을 장애인 기초 수급자 등은 월8천원→1만 6천원, 차상위계층은 월2천원→8천원으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주형환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자부는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불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자세로 에너지안전과 친환경적 수급 기반 구축 등의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령장애인으로 활동지원급여 받아야”

윤소하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앞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으로 활동지원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윤소하 의원은 12월 29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범위를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만 65세가 지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전환돼 지원이 오히려 감소한다. 이에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령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유지 법률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또 개정안에는 활동지원등 급여제를 폐지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활동지원 한도를 제공하는 것과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 돕기 성금 전달

도움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도울 차례



▲대구지장협 임직원 등이 대구서문시장 화재현장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창환, 이하 대구지장협)가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

대구지장협은 산하 8개 구·군 지회,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달성군장애인복지관,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행보호작업장 임직원과 함께 11월 30일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화재 피해 상인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 434만원을 전달하며 빠른 피해

복구를 기원했다.

그동안 서문시장 4지구변영회는 대구지역 장애인을 위해 크고 작은 후원활동을 벌여왔다.

이에 상인들을 격려하고자 방문한 대구지장협 김창환 협회장은 “이제 장애인들이 피해 상인들을 도울 차례”라며 “약소하지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금을 받은 서문시장 비상대책위 측은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교육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제도 개선

장애학생에 대한 학위심화과정 입학 제한 규제 해소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 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대학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졸업수취점을 학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학

생에 대한 학위심화과정 입학 제한 규제를 해소하여 장애인 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중전)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구별없이 전체 정원의 20% 범위로 제한

(개선)장애학생에 대해서는 20% 범위 제한없이 입학이 가능하도록 개정

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문학사 졸업 간호사의 계속적인 교육기회 확대로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장애 학생에 대한 학위심화과정 입학 제한 규제를 해소하여 장애 학생의 직업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영어권자료 무료지원

36만 7천여종의 콘텐츠 제공

국립중앙도서관(관장 박주환)은 국내 거주 시각장애인 100명에게 북셰어(Bookshare) 온라인도서관(<http://bookshare.org>) 36만 6800여 종의 영어권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북셰어(Bookshare) 온라인도서관은 일반적인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미국 베네테크(Benetech)사가 운영하는 온

라인 형태의 도서관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등 약 70개 이상의 나라와 협약을 맺고 36만 6800여 종 이상의 콘텐츠를 국외 거주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한다.

의학,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재활학, 종교학, 문학 등 주제별로 다양한 영어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

번 사업은 1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국내 거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을 모집, 연간 이용료 및 사이트 이용법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신청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http://nlid.nl.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양식을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대폭 확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부양곡 할인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양곡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활사업 참여 차상위·차상위 장애인 수급자(수당, 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정부양곡을 1포(10kg, 20kg)당 50%씩 일괄 할인하고 5인 이상 가구의 월 구매량을 40kg으로 제한하여 공급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더욱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양곡 할인 지원 내용을 확대하였다.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

자에 대한 1포(10kg, 20kg)당 지원율을 90%로 상향(기존 50% → 변경 90%) 하였으며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월 구매량 제한도 폐지하여 가구원수 1인당 매월 10kg씩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17년 양곡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로 정해진 예정이며 '16년의 양곡가격은 10kg 16,400원, 20kg 32,510원임
* 예) 5인 가구 50kg, 6인 가구 60kg

또한 10kg 포장단위는 1인 가구의 경우에만 연중 구매가 가능하였으나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연중 10kg 포장단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부양곡 지원 확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 나은 조건으로 정부양곡을 구매하게 됨으로써 생계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의시설 전문성 확보 및 사명감 강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전복지원센터 실무자 워크숍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전복지원센터 실무자 워크숍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전복지원센터(센터장 김형곤, 이하 전복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전주 풍남관광호텔에서 14개 시·군 센터장 및 실무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하반기 장애인 편의시설 실무자 워크숍 및 송년회'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담당하면서 가져야 할 사명감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기획됐다.

진행은 김형곤 전복센터장의 "편의시설 실무자의 자질과 역량강화" 특강, 국제웃음치료협회 김순자 교수의 "긍정은 삶을 변화시키는 키워드!" 강의 순서로 이뤄졌다.

이어 지역사회 편의시설 관련 유공자인 전북장수군센터 김철민 팀장, 전복남원시센터 김혜진 대리, 농촌진흥청 박상현에게 도지사표창이 수여됐고 조직발전에 기여한 전북무주군센

터 최영민 대리, 전복진안군센터 김하정 대리, 전복순창군센터 이현아 대리에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표창과 부상

이 수여됐다. 전복센터 김형곤 센터장은 "워크숍에 참석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새해에는 새해를 깨우는 닭처럼, 가장 먼저 일어나 앞장서서 회원을 섬기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새해각오와 임직원의 사명감을 강조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중부경찰서와 간담회 개최 장애인 인권보호와 편의시설 확충 논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 이하 경기지장협)와 수원중부경찰서(서장 김동락)는 지난 12월 30일 '장애인 인권보호와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안전망 구축, 경찰·지자체·관련 단체 간 상호협력력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치안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획됐다. 또한 교통사고 노출 위험이 높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 구역 확대와 노면표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블라

드)의 제거 또는 교체, 보도턱 높이 조정, 횡단보도 보행 시간 연장, 음향신호기 확대 등 다양한 시설개선 추진 예정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경찰서와 파출소의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경기지장협과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기술지원 등이 제안됐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협조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리더십 교육 실시 장애인단체 기획력 향상 및 홍보 활성화 기대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부형중, 이하 제주지장협)는 지난 12월 27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다목적실에서 2016 제주지장협 리더십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제주지장협 임

직원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먼저 개교식을 시작으로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강호철 사무국장의 '기획 및 프로포절 작성법'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고한철 지역사회서비스팀장의 'SNS의 활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임직원간의 협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이루어 졌다.

제주지장협 부형중 협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기획력 향상, SNS 활용 등을 통한 소통과 홍보 등 직원들의 업무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만 만큼 봉사정신과 전문성을 겸한 의식 있는 직원자세를 당부한다"며 교육에 임하는 직원자세를 강조했다.



◀제주지장협 리더십교육 참가자들이 교육에 임하고 있다.

문경시지회, 연탄나눔 "저소득 장애인과 나누는 희망의 온기"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흥진, 이하 문경시지회)는 12월 29일 사랑의 연탄기부 행사를 갖고 연탄 1만여장을 저소득 장애인 21가구에 지원했다.

문경시지회는 저소득 장애인
◀문경시지회가 연탄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쌀 후원 사업,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 등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연말연시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후원연계 등을 통해 매년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경시지회 박흥진 지회장은 "추운 날이었지만 함께 연탄을 배달하며 따뜻하고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 작은 지원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태안장복, 한국서부발전 임직원 봉사활동 지역자원연계 통한 장애인복지사업 활성화 기대

태안군장애인복지관(관장 이종만, 이하 태안장복)은 1월 10일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정하황, 이하 서부발전) 임직원 30여명과 장애인이용자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태안장복 강당과 프로그램실에서 진행했다.

서부발전은 물품후원과 함께 직원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함으로써 지역복지관을 통한 직원 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사회공헌활동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태안장복은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서부발전 임원 관계자는 “봉사활동을 통해 더욱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봉사현장에서 함께 몸으로 느끼고 재미와 활력을 더하고자 시작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즐겁게 에너지를 얻고 간

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안장복 이종만 관장은 “국내외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이에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기업 등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많은 사회적 관심을 기대한다”며 사업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한국서부발전(주) 임직원 등이 봉사활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천장복,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저소득 장애인가정 아동에 체계적 후원 기대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한명수, 이하 진천장복)과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석란)는 12월 29일 지역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저소득가정지원 사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진천장복은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가정

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후원금의 효과적 전달 여부와 지원아동들의 생활실태를 정기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진천장복 관계자는 “향후 두 기관은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저소득가정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연계 계획을 밝혔다.

◀진천장복과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의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애인과 함께해서 더 행복한 설 명절 괴산장복, 괴산동진로타리클럽과 함께 무료급식 행사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 이하 괴산장복)은 괴산동진로타리클럽(회장 진금순)과 함께 설날을 앞둔 지난 1월 17일 장애인, 지역주민 8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17년 붉은 닭의 해를 맞아 괴산동진로타리클럽의 후원으로 복지관 이용자 등 80여명의 장애인과 지역주민에게 제공됐다.

괴산동진로타리클럽 진금순 회장은 “지역장애인들이 더욱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따뜻한 손길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서 나눔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괴산장복 정효선 관장은 “향상 지역장애인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괴산동진로타리클럽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훈훈한 설날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장애인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괴산장복이 괴산동진로타리클럽과 함께 무료급식 행사를 진행했다.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장애인 이불 후원 홍성장복 배식봉사 함께 하며 온정 전해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지사장 유문상)는 연말을 맞아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후원 활동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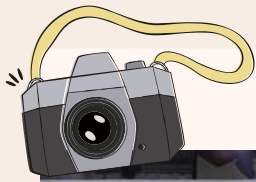
12월 28일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천규)을 방문해 극세사차렵이불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

며 저소득 장애인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직원들은 떡과 과일을 함께 준비해 손수 배식봉사에도 나섰다. 이용자들을 직접 만나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직원들이 홍성장복을 방문해 후원활동을 벌였다.



포토리뷰 지장협 제12기 시·군·구 지회장 직무교육



▲제12기 지회장 임명장 수여



▲열정적으로 참여한 지회장들



▲김광관 중앙회장의 특강



▲이중성 사무총장의 강의



▲홍현근 편의증진국장의 강의



▲염민호 대외협력국장의 강의



▲김영근 조직시설국장의 강의

월간 <새보람>

제12기 지회장 인터뷰

회원분들과 함께 최고의 지회를 이루기 위해 매진할 것

지장협과의 인연 : 유아기 시절 왼쪽 다리전체의 근육마비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년이 된 후에는 일반 봉사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이후 주변 지인들이 지장협 회원가입을 권유하여 뒤늦게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의정 활동(인천남구의회 4선과 의장 역임)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중심의 사회 환경 개선, 정책 마련 등을 위해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 인천남구지회장으로 그동안 쌓아온 의정활동 등의 경험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매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권익증진을 위해 법률 자문단(변호사, 회계사)을 구성해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게 차별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상담 및 현장조사, 진정과 법률자문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처럼 우리 남구지회는 회원분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이만큼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비록 한사람의 보잘 것 없는 제가 지회장을 역임하게 되었지만 회원분들이 있기에 더욱 발전하는 최고의 남구지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회원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정유년(丁酉年) 희망찬 새해를 맞아 지장협의 모든 회원님들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김현영 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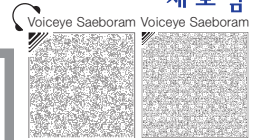
지회 안정화를 위해 황소처럼 뛰며 최선을 다할 것

지장협과의 인연 : 저는 젊은 시절 건설업에 종사하던 중 낙상 사고를 당하여 1달 여간 깨어나지 못하고 장례식을 준비하던 중에 극적으로 제2의 삶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사회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장협에 몸담고 운영위원으로 다년간 활동하다가 뜻한바 있어 금번 12기 지회장으로 임명이 되어 출발 선상에 올랐습니다. 청도군 지회의 경우는 장애인연합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 활성화 되어 있다 보니 개별 사업을 청도군지회가 지원받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올해는 큰 틀에서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각오 : 청도군지회는 지난 2년간 크고 작은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회장과 직원 및 임원이 똘똘 뭉쳐서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조직을 강화시키고 어떠한 외풍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지회로 탈바꿈 시킬 생각입니다. 또한 회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회원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저력 있는 회원 발굴을 통해서 질적 성장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우리 청도지역은 황소의 기운이 깃들여 있는 저력 있는 고장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황소처럼 뛰어서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
신한구 지회장



2017년 장애인복지 관련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부는 2017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7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복지를 중심으로 변경된 주요 복지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전체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장애인연금의 경우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선정기준액이 인상됐다. 지난해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었던 선정기준액이 2017년 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만 4천원으로 상향됐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1)

(단독가구) 100만원 → **119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 **190만 4천원**

✓ 발달장애인 서비스 강화

발달장애인 지원과 권리증진을 위해 17개 광역자치체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복지, 고용, 교육 서비스 등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 지원, 재판 보조 참석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해나 공격 등 발달장애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각각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한양대병원에 운영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2-2023-3347)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 설치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에 설치된다. 올해 시·도별 지역권익옹호기관 17개소가 연내 개소할 예정이다. 기관은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학대 사고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피해 장애인 응급보호 및 회복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1개소)만 운영 + 지역 17개소
추가 설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확대됐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439만원에서 올해 447만원으로 1.7% 확대됐다. 또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지난해 127만원 대비 5.2% 상향 조정된 수치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올해부터는 134만원으로 인상돼, 지난해와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의 경우 급여액이 7만원가량 오른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2)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4인가구 기준) 127만원 → **134만원**

✓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올해부터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 급여를 지원한다. 산소발생기는 월 20만원, 기침유발기는 월 16만원이다. 또 척수장애인 등 배뇨곤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가도뇨카테터를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한다. 1일 기준 9천원으로 최대 6개까지 요양비를 지급한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필요한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기준액도 인상됐다. 지난해 5640원에서 올해에는 1만 420원으로 증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	비급여	대여료 신설 20만원(휴대용 산소발생기), 16만원(기침유발기)
자가도뇨카테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대상자 확대 선천성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	5,640원/일	기준액 인상 5,640원/일 → 10,420원/일



보건복지부, 헬스케어 미래관 공식 개관

디지털헬스케어 통한 미래 보건의료 모습 선편



▲ 보건복지부가 헬스케어 미래관을 공식 개관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국민들이 디지털헬스케어(Digital Health Care)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인 '헬스케어 미래관'을 지난 12월 22일 개관했다.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은 이제 1.0(전염병예방)과 2.0(질병치료로 기대수명 연장)을 지나 3.0(예방과 관리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공급자 치료 중심에서 의료소비자 개인화된

맞춤형 의료로 변화하고 있다.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디지털헬스케어는 이러한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질병의 예방이나 진단, 치료 및 재활뿐만 아니라 의료

재난 예방과 대응, 취약계층 환자관리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헬스케어 미래관'은 디지털 진단 및 스마트 헬스케어, 모바일 디바이스, 유전체 정보분석, 의료 인공지능, 보건의료 빅데

이터 등 7개의 테마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 및 재활 등 분야별로 디지털헬스케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건강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건강 위험도나 맞춤형 건강정보 등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개관식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의료-IT 융합으로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국민건강수준 향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헬스케어 미래관이 ICT를 통한 미래 보건의료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0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02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주차불가)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 2월말까지 집중교체 기간으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교체발급
※ 8월말까지 계도기간(표지교체 가능), 이후 9월부터 기존 표지사용 차량은 과태료 부과



제26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장애인 삶의 체험과 개성을 표현하는 소통적 관점으로 심사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가 주관하는 제26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이 지난 1월 5일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미술대전 대상은 회화부문 송진현 씨의 '비오는 날'(서양화)이 수상했고 서예부문에서는 이봉화 씨의 '황진이 시'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문학상에는 윤문부문 황신애, 산문부문 제삼열 씨가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미술대전에는 총 143점(회화 84점, 서예 59점)의 작품이 접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전시회가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진행됐다.

수했고, 최종 심물심사를 통해 82점이 입상했다. 한편 문학상은 총 299편(운문 206편, 산문

93편)이 접수되었고 이 중에서 20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문학상 심사를 맡은 문학평

론가 허혜정 숭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과 교수는 "장애

인으로서 삶의 체험과 곡진성,

개성적인 발상과 세련된 언어 구사력, 독자에게 던져주는 울림이라는 소통적 측면을 심사

의 초점으로 삼아 수상작을 추려나갔다"고 밝혔다. 문학상 주관 단체 방귀희 대표는 "25년 동안 주최해오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폐지를 공식화하여 올 해 정밀 고등

스러웠는데 다행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마련해주어

시행이 됐다"며 "앞으로 안정적

으로 운영해서 발전시켜야 한

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구성 비바챔버앙상블 첫 정기연주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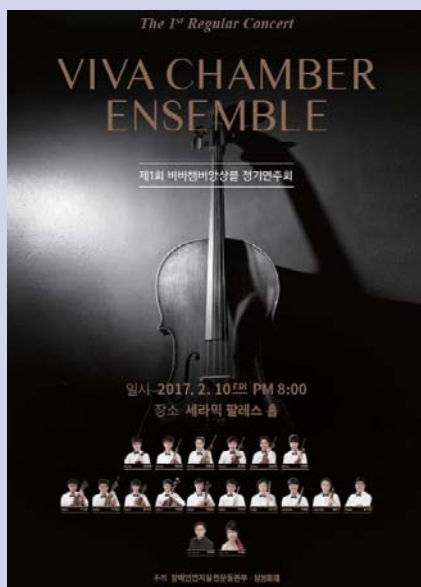
오는 2월 10일 세라믹팔레스홀에서 열려

발달장애인 16명으로 구성된 비바챔버앙상블의 첫 정기연주회가 오는 2월 10일 오후 8시 서울 강남구 소재 세라믹팔레스홀에서 열린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삼성화재는 지난 2015년 음악에 재능 있는 장애학생의 역량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비바챔버앙상블을 창단했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 지금

까지 받은 사랑과 관심을 특별한 하모니로 보답할 예정이다.

비바챔버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남국의 장미, 왕궁의 불꽃놀이, 꽃구름 속에 등 다양한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공연 관람은 인터넷(<http://naver.me/5ExFP87b>)으로 신청하면 된다.



▲비바챔버앙상블의 첫 정기연주회 포스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지적장애청소년농구팀 아산BIGS,동계집중훈련 돌입

2017년 각종 대회 필승 다짐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에서 운영하는 지적장애청소년농구팀 아산BIGS가 동계방학 기간 집중훈련을 시작했다.

1월 2일부터 시작한 훈련에는 배방고등학교, 온양고등학교, 온양융화고등학교, 설화중학교, 온양신정중학교, 온양중학교, 성심학교 등 아산시 관내 7개교에서 모집한 장애청소년 농구선수 12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제23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등 2017년도에 열리는 각종 대회에 참가해 운동을 즐기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아산BIGS 주장인 홍석호(온양고 1학년) 학생은 "작년에 아쉽게 우승하지 못했던 대회들이 떠오른다"며 "친구들과 열심히 훈련해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

아산BIGS 최진영(아산장복체육교사) 코치는 "방학 기간인데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집중훈련을 잘 이겨내 기초체력과 기본기기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아산BIGS 동계집중훈련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

마트체육관과 순천향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2월 말까지 이어진다. 이번 훈련에서는 학기 중에 하기 힘든 기초체력훈련을 중점으로 부족한 개인 기본기기술을 가다듬고 향상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두고 있다.

한편 아산장복에서는 아산BIGS와 함께 운동하기를 희망하거나 전문적인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관련 문의는 아산장복 문화체육지원팀 (041-545-7727) 최진영 생활체육교사에게 전화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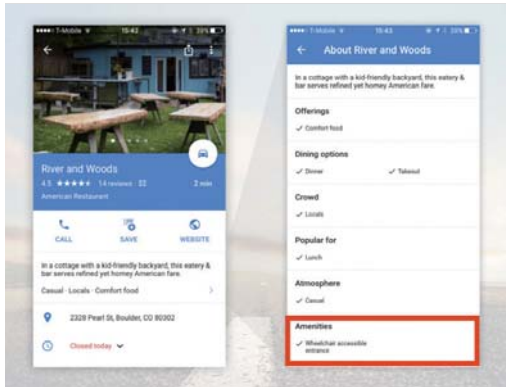


▲지적장애청소년농구팀 아산BIGS 선수들이 동계집중훈련에 돌입했다.



“구글맵에 휠체어 접근성 정보 뜬다”

구글지도, 건물 내 휠체어 접근 여부 표시



▲ 휠체어 접근 여부를 표시한 구글맵 애플리케이션. ©Business Insider

이제 미국인들은 특정 장소를 방문할 때 휠체어 진입 여부를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구글맵에서 특정 장소에 휠체어 접근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비즈니스인사이드, 테크크런치 등 매체에 따르면 구글맵은 미국 전역에 휠체어 접근성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구글맵은 장소(location) 메뉴에서 운영시간, 리뷰, 분위기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

미국의 휠체어 사용자는 약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구글맵에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정보 제공 요청이 이어져왔다. 미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규정이 있지만 지도 소프트웨어는 의

무 사항이 아니다.

기존에 휠맵(Wheelmap)이라는 서비스가 있으나 아직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곳이 많았다. 미국의 장애인법에 따르면 1993년부터 새로 건축되는 건물에는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이전 건물은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상당하다.

구글맵에 휠체어 접근성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구글이 업무 외 20%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덕분에 시작될 수 있었다. 구글은 2013년부터 근무

시간의 20%를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20% 시간(20% tim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글 드라이브팀 제품 매니저인 리오 아카사카라(Rio Akasaka)는 20% 시간 제도를 이용해 지난 1년간 5~10명의 직원들과 함께 구글맵에 접근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는 “휠체어 접근성 정보는 장애인뿐 아니라 유모차를 끄는 부모, 지팡이에 의존하는 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과 함께 채용돼 마트의 마스코트 된 ‘루시’와 ‘샬롯’

미국에서 지체장애인과 도우미견을 함께 채용한 사례가 알려졌다. 텍사스 주의 한 마트에서 다리가 불편한 클

레이 루시(Clay Luthy)와 도우미견 샬롯(Charlotte)이 함께 일하게 된 것이다.

루시는 미 공군 시절 다리 부상으로 수술을 5번이나 받았다. 그는 결국 왼쪽 발을 접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는 불편한 다리 때문에 구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때 텍사스의 한 마트에서 흔쾌히 도우미견과 함께 일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루시는 일 자리를 갖게 됐다. 도우미견 샬롯은 루시가 계단을 오를 때나 힘을 쓸 때 도움을 주고 있다.

일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루시와 샬롯은 매장의 마스코트가 됐다. 한 손님은 루시와 샬롯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찍어 페이스북에 게시했고, 해당 게시물은 18만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며 빠르게 퍼져 나갔다.

누리꾼들은 “보기 좋은 광경이다”,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다” 등의 댓글로 루시와 샬롯을 응원하고 있다.



▲ 지체장애인 루시와 도우미견 샬롯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 ©CBSNEWS

“얼마짜리 지폐인지 알고 싶어요” 호주, 11살 시각장애인 소년 '소원 성취' 호주 중앙은행, 점자지폐 발행 청원 운동 수용

호주에서 지폐를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11살 시각장애인 소년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3년 전 11살 소년 코너 맥러드는 성탄절을 맞아 약간의 지폐를 선물로 받았지만, 얼마짜리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해했다.

호주 지폐는 5달러부터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까지 다양하다. 맥러드는 시각장애인이 지폐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은 차별이라고 느꼈다. 점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호주인권위원회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청원 운동을 펴 5만 6천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냈다.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들도 점자지폐 발행에 힘을 보탰다.

소년 맥러드의 진심 어린 호소를 통해 호주는 촉각을 이용해 구별이 가능한 5달러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호주 중앙은행은 지폐 모서리에 설

한 알 크기의 작은 돌출부 2개를 넣어 촉각으로 감지할 수 있게 했다. 또 앞으로 발행할 모든 지폐에 유사한 기능을 넣을 예정이다.

시각장애인 자원단체인 '비전 오스트레일리아'의 브루스 맥과이어는 호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맥러드의 청원운동이 중앙은행을 움직이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호주의 시각장애인 35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

게 됐다.

한편 이번에 발행한 5달러 지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중간 부분을 위에서 아래 부분까지 투명하게 만들어 위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다.

호주는 1988년 플라스틱 지폐를 시험 유통한 데 이어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했다. 지폐의 수명을 늘리고 위조 방지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지폐 제조에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호주에서 점자지폐를 발행했다. ©Vision Australia via Facebook

르포

장애인단체 활동가 연수교류사업

독일·벨기에 ‘장애인 접근 가능한 관광자원 탐방’

해외연수 길에 오르다

한국장애인재단은 지난해 5월 해외연수사업 참가자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경기성남시지원센터 염진영, 서울시의원 우창윤, 서초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최광훈,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손원진, 제주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송창현,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전윤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황은선, 경북농아인협회영천지부 고재정 등 8명이 선발되었다.

사전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국내연수를 시작으로 7월 4일 동덕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과 이봉구 책임교수,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및 직원을 포함 총 15명이 해외연수 길에 올랐다.

이번 해외연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벨기에 브뤼셀 등을 거치는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2인이 같은 조가 되어 조별로 연수 대상기관 2곳을 선정 후 보고서 작성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조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연관성이 높은 Natko*와 DB*를 선정하였다. (하단 박스 참조)

접근 가능한 관광 사업성 잠재 수요 8억 6천명

먼저 Natko와 DB를 통해 바라는 접근가능한 관광의 핵심은 개념, 대상, 사업성이라 할

수 있다.

‘접근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의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접근가능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전체를 말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 또는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과 그 가족, 집단 또는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목적이다. 세계관광기구(UNWTO)는 보편적 권리 영역을 위해 장애인 관

상을 상대로 한다. “Economic impact of Accessible Tourism in Europe(2014)”에서는 접근 가능한 관광의 잠재 수요성을 8억 6천명으로 예상한 바 있다. 또 접근기반시설을 갖추었을 경우 장애인 및 노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접근 가능한 관광 키워드 6가지

◆접근성= 일단 편의시설 설

소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집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교통, 숙박을 비롯해 관광지 주변의 다양한 정보까지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

◆교육= 장애인 관광에 대한 체계적 교육도 필요하다.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과 함께 관광지 대응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적극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하는 곳과 연계하면 기간 설립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수익성과 관련한 선진국의 사례를 기업에 알려 투자가치가 충분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선진 사례에서 보듯 운영예산 등은 수익사업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정책= 접근 가능한 관광지 선택과 그에 따른 인증 및 설치등급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교통 및 숙박, 여가 중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기 어렵다. 개인 맞춤형 관광은 개인이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서비스에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행 계획부터 경비 및 여행경로까지 모든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구축해 선택 결정권만 당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 결정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모바일)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또 문밖을 나서기 전 미리 여행지를 둘러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면 ‘접근 가능한 관광’이 ‘모두를 위한 관광’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다.



▲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실시한 해외연수사업의 참가자들.

광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접근 가능한 관광의 대상은 장애인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동성이 제한된 노인이나 어린이 등을 포함한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폭넓은 대

차와 제대로 된 유지 보수가 가장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아무리 편의시설이 우수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접근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현재 도로, 항공, 선박, 대중교통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법적 규정에 대부분 맞지 않으며 각각장애인을 위한 설치 전무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접근 가능한 관광이 시작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및 노약자를 배려한 관광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관광지 소개가 전부다. 이제는 장애인을 배려의 대상이 아닌 소비자로 바라보고 각자 눈높이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 관광 정보는 단순 관광지

◆인식개선=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은 단순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님을 인식시키고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 받아들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적 물적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민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치 노력이 있어야만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재정= 민간단체를 컨트롤하고 지원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집행부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일을 수행

끝으로 이번 해외 연수는 개인적으로 선진 복지정책과 제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세미나와 보고서 및 후속 연구가 남아있지만 그간의 노력과 결실이 만족스러웠다. 하루 빨리 선진 복지정책들이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해외 선진사례를 연구할 기회가 많이 생긴다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한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경기성남시지원센터
염진영 부장

※ NatKo(National Tourism for All Coordination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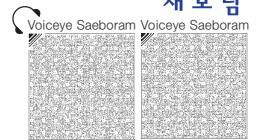
- 독일 장애인협회와 독일 보건부 지원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독일 내 접근가능한 관광의 핵심 기관이다.

※ DB(Deutsche Bahn)

- 이동성 어려움을 가진 철도 이용객이 독립적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5

년 65만회 이상의 서비스를 장애인 철도 이용객에게 제공했다.

- 이동성 어려움을 가진 철도 이용객을 위해 1999년부터 이동성 서비스센터(Mobility Service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 전날 저녁 8시까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최적의 연결편과 승차차에 필요한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2.7%→2.9% 공공기관은 3%→3.2%로 상향 조정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지난 12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결정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공무원)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기존 3%에서 3.2%로 상향조정됐다. 이어서 2019년부터는 3.4%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상시근

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2.7%인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올해부터 2.9%로, 2019년부터는 3.1%로 상향조정

된다.

국가·자치단체도 2020년부터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가·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일자리 4만 6천여개에 장애인이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전문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업훈련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나도 전문가

“맛있는 커피 오랫동안 만들고 싶어요”
성남장복 1층 카페 ‘숨니움’
바리스타 ‘김성호 씨를 만나다’



▲커피를 만들고 있는 김성호 바리스타.

성남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희철)의 대학생기자단은 최근 복지관 1층 카페 ‘숨니움’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김성호 바리스타를 만났다.

그는 복지관에서 발달장애 청년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바리스타 전문훈련을 수료하고 2015년 1월부터 근무 중이다.

김성호 바리스타는 낯선 훈련환경과 음료 제조법 습득, 기계조작 등 다양한 기술을 배우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처음 훈련을 시작할 때는 에스프레소 샷을 내리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유의 성실함으로 2014년 모든 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관련 자격증까지 취득해 정식 바리스타가 됐다.

김성호 바리스타는 “카페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또 그는 “능력이 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바리스타 전문훈련을 담당하는 유성빈 직업재활사는 “김성호 바리스타는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부터 결제, 서빙, 커피 제조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진지한 자세와 성실함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구직 장애인의 욕구와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에 어울리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취업 훈련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인천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 직업체험과 훈련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발달장애인에게 직업체험과 훈련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설치됐다.

지난 12월 15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이하 서울센터)가 개소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이하 인천센터)가 업무를 개시했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와 교육부가 협업체립한 정부 3.0의 모델이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 센터 부지를 제공하고 고용노동부가 센터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한다.

각 시·도센터는 앞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시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직업 욕구 및 특성에 맞는 전문 교육

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 후 2년 내의 발달장애학생에게 직업체험과 훈련을 제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게 된다.

제1호로 개소한 서울센터는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시설 외에도 실제 사업장과 동일한 환경을 갖추고 직무체험을 할 수 있는 직업체험실습실을 운영한다.

직업체험실습실에는 발달장애인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도서관 사서, 쉬운 글 번역, 바리스타, 제과제빵, 사무행정, 우편 분류 등 다양한 직무에 대한 훈련을 제공한다. 이때 실제 근무 환경과 유사한 체험실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KT, 베어베터, 이랜드 SPAO, 다솜이재단, 피치마켓, 우정사업본부 등 12개 기업체와 기관 등이 참여했다.

또 인천센터에는 클린관, 제조관, 서비스관, 정보서비스관, 힐링관 등 실제 사업장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총 5개 직업체험관이 설치됐다. 이곳에서 의료세척, 세탁, 전기·전자·자동차 부품 제조 및 포장, 영화관 및 유통서비스, 사무보조 등 10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학령기 발달장애인은 직업체험을 통해 흥미와 가능성을 찾고, 졸업한 발달장애인은 직업훈련을 통해 꿈을 키우는 센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서울과 인천센터를 시작으로 2017년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12월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개소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권리옹호기관 및 사업 정보

한눈에 알아보기

신성철 과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해 현재 국가가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 경기, 대전, 광주, 전남지역 등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장애인인권센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민간단체 차원에서의 권리옹호사업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이렇듯 복잡하고 다양한 장애인 권리옹호기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권리옹호기관 및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차별과 연령차별에 대해 조사와 구제를 한다. 특히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는 진정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구급·보호시설의 경우 방문조사도 할 수 있다.

상담방법 및 지역인권사무소 안내

전 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1 / 팩스 02-2125-9811~2
이메일	hoso@humanrights.go.kr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우편/방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
지역 인권 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인권사무소 ☎ 051-710-9716 광주인권사무소 ☎ 062-710-9710 대구인권사무소 ☎ 053-212-7000~7009 대전인권사무소 ☎ 042-472-9038 ~ 9045, 8566, 9576, 6822

2. 지역조례에 따른 장애인인권센터

각 지역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의 위기에 처한 장애인 발견 시 사례개입 및 구제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해당지역 및 상담방법 안내

지역 인권 사무소	서울장애인인권센터 ☎ 1644-0420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 031-287-1134
	대전장애인인권센터 ☎ 042-672-1479
	광주장애인인권센터 ☎ 062-531-0420
	전남장애인인권센터 ☎ 061-802-0345
	전북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 063-232-1254
	울산북구장애인인권센터 ☎ 052-287-1254

3.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인권위원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장애인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보호 증진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실질적 평등권을 구현하기 위해 산하에 장애인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장협은 중앙장애인인권위원회와 17개 시·도인권위원회, 230개 시·군·구인권위원회를 두고 장애인의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지역의 장애인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용, 법률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각종 복지제도 등 정보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지장협은 2016년 경기, 전남, 경북협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사업을 운영, 69명의 강사를 배출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장협은 2017년부터 장애인 권리옹호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지역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인권침해 및 차별을 당하거나 주위에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있을 경우 바로 연락하면 된다.

상담방법 및 전국장애인인권위원회 안내

전 화	02-796-4280 / 팩스 02-796-4281
이메일	kappd@kappd.or.kr
홈페이지	www.kappd.or.kr
우편/방문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1호
시·도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장애인인권위원회 ☎ 02-797-5413 부산장애인인권위원회 ☎ 051-465-8857 대구장애인인권위원회 ☎ 053-954-0170 인천장애인인권위원회 ☎ 032-884-2373 광주장애인인권위원회 ☎ 062-529-3329 대전장애인인권위원회 ☎ 042-471-0084 울산장애인인권위원회 ☎ 052-283-1216 세종장애인인권위원회 ☎ 044-864-8999 강원장애인인권위원회 ☎ 033-262-1211 경기장애인인권위원회 ☎ 031-247-7721 충북장애인인권위원회 ☎ 043-266-8025 충남장애인인권위원회 ☎ 041-853-4907 전북장애인인권위원회 ☎ 063-288-9245 전남장애인인권위원회 ☎ 061-287-4990~2 경북장애인인권위원회 ☎ 054-842-9300 경남장애인인권위원회 ☎ 055-266-3228 제주장애인인권위원회 ☎ 064-756-4980

4.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의 위기에 처한 장애인 발견 시 사례개입 및 구제활동과 장애인식개선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방법 안내

전 화	1577-5364 / 팩스 02-2675-8675
이메일	human5364@daum.net
홈페이지	15775364.or.kr
우편/방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장애인일자리사업

정보기술자격 및 직업역량교육

장애인에게 직업이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통합을 이루는 진정한 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한 장애인통계를 살펴보면 장애인 경제활동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직업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은 아직까지 경증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안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일자리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

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되며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라면 신청가능하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통 참여자모집은 그 전년도 12월경에 각 시·군·구청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일반형일자리사업 대상자에게 민간 고용시장에서의 장애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보기술자격 및 직업역량교육'이라는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교육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보기술자격 및 역량교육

2013년부터 시작된 정보기술자격 및 역량교육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전산교육을 통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정보기술자격(ITQ)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13년 51명, 2014년 105명, 2015년 50명의 참여자가 ITQ(엑셀)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전산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형일자리 참여자는 교육시간을 공가로 인정받는다. 또한 수행기관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운영비 및 KT-IT 서포터즈 교육 강사가 지원된다.

정보기술자격 및 직업역량교육 대상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일반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참여 중인 분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형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주로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 전담지원 등 컴퓨터를 활용하는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분야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므로 일반형일자리사업 경험자 혹은 현재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수행기관의 역할 및 수행기관 선발방법

정보기술자격 및 직업역량교육은 사업수행기관 15개소, 참여 장애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 수행기관은 정보화교육장을 갖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으로 1개소당 일반형일자리사업 참여자 10명 내외로 ITQ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각 시·도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50명을 모집하여 취업 전 기술,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안내 등을 교육하는 직무역량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수행기관 공모는 공고 및 접수를 통해 기관 접수를 받고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이 이루어지며 총 2회에 걸친 공모를 통해 현재 13개 시·도에서 15개 수행기관이 선정,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육 수행기관

연번	지역	기관명
1	부산광역시	금정구장애인복지관
2	대전광역시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동구지회)
3	광주광역시	동구장애인복지관
4	대구광역시	대구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5	세종특별시	세종시장애인복지관
6	경기도	고양시장애인복지관
7	경기도	고양시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8	경기도	남양주시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9	충청북도	충북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청주)
10	충청남도	충남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천안)
11	경상남도	진해시장애인복지관
12	서울특별시	영등포장애인복지관
13	경상북도	포항시장애인복지관
14	전라북도	전라북도립장애인복지관
15	전라남도	영도복지관

정보기술자격 및 직업역량교육 신청방법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수행기관에 교육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참여 신청자 중 인원이 초과할 경우 교육대상 선발기준을 통해 선발하게 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1순위 : 현재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 2년 연속 참여자 중 직전년도 교육 미참여자
- ▶ 2순위 :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중 신청 순
- ▶ 3순위 :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 참여 경험에 있는 자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사보 <디딤돌>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 보 란 제282호 2017년 1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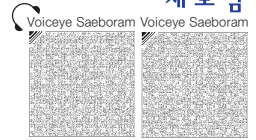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인호 기자 / 오창석, 이정희 디자인 / 이희진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로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news@kappd.or.kr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구독문의 : (02)2289-438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김병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



“장애인 피난·구조에 관한 매뉴얼이 없다” 재난 취약계층 재난 안전 대책 서둘러야

한국DPI가 주최한 ‘장애 포괄적 재난안전 위기관리 시스템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지난 1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이 좌장이 되어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최규출 교수(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가 기조 발제를 했다. 또 이기배 회장(한국시설관리사협회), 이찬우 사무총장(한국적수장애인협회), 권영숙 선임연구원(도시살연구소), 강윤목 보좌관(국회의원 이종명 사무실), 김광웅 과장(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이 토론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토론회를 이끌어가는 서인환 사무총장은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특정 영역이 아닌 포괄적 안전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가장 큰 피해자는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을 강구하는 대책과 사전 행동 요령에 대한 진지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되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최규출 교수는 “정부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 평균 22명에 달하며 재산 피해는 5200억원 정도로 복구비용까지 1조원 이상의 피해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또 재난 발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안전·위기관리 시스템’을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규출 교수는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 줄 것을 강조했다. 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 및 체계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도 장애인 재난관리 담당부서나 장애인에 대한 통일된 재난관리 정책을 세워두고 있지 않다. 현재 국민안전처의 ‘재난관리 규정’에는 재난의 예방으로부터 복구까지의 4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해당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 관리의 포괄적 범주에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재난안전 관련 정책은 아직까지 마련



▲한국DPI가 ‘장애 포괄적 재난안전 위기관리 시스템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되지 않았다.

이어서 토론자들은 각자의 발표를 통해 국내의 재난 안전관리 실태와 외국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선진국에서는 재난 발생 시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재난 안전 대책을 세워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재난 예방과 안전·구조 등을 포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재난에 대한 경보와 알림 체계 ▲교육과 훈련 및 대피 명령 등 장애인의 재난에 대한 활동 내용을 담은 법 규정과 매뉴얼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 화재나 지진 발생과 같은 재난 발생 시 긴급히 피

난하거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전한 장소까지 쉽게 피난이 가능하고 안전도우미가 없어도 혼자서도 이동할 수 있는 피난 환경이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평상시 실제적인 장애인 재난 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실제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사로나 승강식 피난기 등 장애인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탈출 장치를 사용한 훈련이 평상시에 이뤄져야 한다. 특히 장애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피난시설 및 구조 장비의 사용 방법 등을 평상시 훈련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몸에 익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완강기의 경우 시각 장애인과 뇌성마비 장애인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척수 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다.

또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알려야 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도 주목을 끌었다. 일본의 경우 관할 소방서 및 이웃 주민들이 장애인의 거주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 도움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동 집합 건물에서 이웃집에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아 장애인의 재난 대피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안내견(犬)까지 구조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독일에서는 주민들이 동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정확한 숫자를 인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방서 및 구조 당국은 물론 이웃 주민에게 장애인의 상태를 인지시켜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도 재난 발생 상황에서 누구에게 구조 및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사전 확인과 대비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의 재난 안전 위기관리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하며 실제적인 대응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특별 기고

‘차별 없는 세상’이 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장애인관련 각종 법에서 공통적으로 이동권과 관련하여 정의하고 있는 키워드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증의 장애인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과 차별이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외식을 할 때 “뭘 먹을까?”를 고민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은 메뉴선택보다는 “어디로 가지?”를 고민한다. 또 이들은 “광주에 내가 갈 수 있는 극장이 어디 있을까?”, “프로야구 경기를 가고 싶은데 휠체어를 타고도 갈 수 있나?”, “남의 도움 없이 나 혼자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을까?” 비장애인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안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과 그들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거나 생존권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들의 이런 불편과 차별을 해소하고 균등한 사회참여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장애인협회(이하 광주지장협)에서는 일반 음식점, 문화, 체육, 관광, 공원, 여가, 스포츠관람,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정보를 홈페이지(<http://편한세상.org/>)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편리하게 편의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더편한세상’을 검색하면 되고 스마트폰 앱은 구글 Play 스토어에서 ‘더편한세상’을 검색하여 설치하면 된다.

이 홈페이지와 앱에서는 광주광역시 소재 1만여 곳의 일반음식점 정보는 물론 더편한세상이 추천하는 베스트업소와 광주광역시 선정 모범음식점과 맛 집 정보가 우선 제공되고 금년 9월까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모두에게 차별 없는 세상으로 거듭나” 광주광역시, ‘더편한세상’ 홈페이지·스마트폰 앱 오픈

대한 정보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와 앱은 이용편의를 위해 지역별, 메뉴별, 편의시설별 검색기능이 탑재 되었으며 특히 앱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한 내 주변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최우선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라는 우리 시 슬로건의 지향점과도 부합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광주지장협과 함께 기획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아낌있게 출발하였다. 한편 이 사업의 핵심은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혹시라도 부정확한 정보를 믿고 갔다가 낭패를 보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분들에게 더

큰 상처를 드리는 것이 되기에 광주시는 특히 이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둘 것이며 거점별로 상시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는 등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실시간으로 정확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편한세상은 이동약자(교통약자)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산실이 될 것이고 광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광주에서 시작한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결국 하나의 홈페이지로 집결된다면 대한민국의 편의시설

정보를 한눈에 보고 활용할 수 있는 종합안내 사이트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 이동약자들이 더편한 세상을 통해 세상과 한발짝 더 소통하고 광주의 모든 것을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올해도 장애인 여러분 파이팅!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김성광 과장





Quiz

- 01 보건복지부는 <2017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장애인□□□□기관을 전국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 02 이번호 새보람에서 가장 인상깊은 기사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 03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주세요.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응모요령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news@kappd.or.kr)

독자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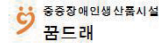
내년부터 장애인 주차표지가 바뀌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데 지장협 편의시설 담당요원의 활약을 많이 기대합니다.
-박순원

2017년에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해주 시기 바랍니다. -장인순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최승원
국립한국복지대학교

당첨자 경기 안양시 박순원
경북 포항시 장인순
대전 동구 이성자



[http:// www.gabrielcenter.or.kr](http://www.gabrielcenter.or.kr)

소중한 사람에게 하는 선물·행사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천연비누세트, 답례품, OEM

원하시는 문구,이미지 예쁘게넣어드립니다.
민고 쓸 수 있는 비누를 만들겠습니다.



가브리엘천연비누 1구

가브리엘천연비누 3구

가브리엘천연비누 4구

답례품(주문제작)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4라길 04-12
가브리엘작업장 Fax. 02.951.9708

필요한 제품 주문해 주세요!
Tel. 02.951.9707

“일을 통한 삶의 가치 실현”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이 동행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1. 합리적인 용역 금액
2. EM제제 사용을 통한
품질 향상
3. 협력업체 요구의
신속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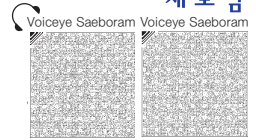


의료세탁물처리업 “정성담아 클린서비스”



의료기관세탁물신고필증
제2011-5340030-00001호

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447 ☎ 055)835-8066 ☎ 055)835-8022 🌐 www.4000boho.or.kr



리더스토리

존경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잘난 사람이 많았던 2016년 병신년이 가고 2017년 정유년이 힘찬 닭울음 소리와 함께 밝았다. 매년 새해가 되면 꿈과 희망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 어수선한 시기에 감명 깊은 기사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달 미국 최초 우주인으로 알려진 존 글렌의 별세에 각계에서 영웅 찬사와 애도가 쏟아졌다. 글렌은 우주비행사 출신의 정치인이었다. 그는 2016년 12월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에 있는 오하이오주립대병원 제임스 암센터에서 자병으로 95세에 생을 마감했다.

글렌 의원은 1954년부터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사로 근무하다 1962년 2월 20일

프렌드십 7호를 타고 지구 궤도 선회 비행에 성공하면서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 영예를 얻으며 우주시대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1964년 현역에서 은퇴한 그는 1974년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총 4선에 성공했으며, 1984년엔 민주당 대선 경선에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그는 정계 은퇴 직전이던 1998년 10월 77세의 나이로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에 탑승해 최고령 우주인으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가 최초의 우주비행에 했던 날로부터 36년이 지난 후였다.

그런데 그의 사망 소식에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었다. 그를 존경하는 미국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존 글렌이 존경받는 것은 단지 그가 최초의 우주인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상원으로서 30년간 정치가로 일하

면서 미국과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 것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에게 과오가 전무할 리는 없을 텐데도 그를 깎아내리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듯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려면 그 사람의 행동과 사상뿐 아니라 사람을 대하면서 과보다는 공을 우선시하는 시민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사실 누구든지 깊이 파고들면 과거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만 보더라도 과거 없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반면 세계인의 존경을 받은 노예해방의 아버지 링컨도 알고 보면 노예를 소유했던 사람이었다. 또 레이건은 부인이 사치해서 국가 예산을 몰쓰듯이 썼다지만 그들이 퇴임한 이후에 그런 사실보다는 국가에 대한 헌신이 강조되었다.

이렇듯과는 덮어주고 공은

세워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큰 혼란 속에서도 새롭게 시작된 2017년 정유년은 국가적으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중한 우리의 임무가 놓여 있고, 안으로는 우리 협회 중앙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는 오늘날 향상된 복지사회를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성인인 만큼 언제 어디서나 자기 본분을 지키는 사람, 작은 것에 감사하며 혼자 있을 때나 누가 지켜볼 때나 똑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공자께서 군(君), 신신(臣臣), 부부(父子), 자자(子子)라고 했듯이 임금에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사는 사람을 좋아한다.

자기 생활에 만족하며 남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진솔한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 그리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이건휘 협회장

장애계 인사이트

‘봉사(奉仕)’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봉사(奉仕)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쓰’이라고 한다. 광대하게 보자면 위 아 더 월드(We are the world)를 표창하는 엔지오(NGO) 단체가 무척 많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NGO단체가 있고 이 글을 쓰는 나도 이 글을 보는 여러분도 아마 NGO 단체에 기부하고 있거나 그러한 경험에 있는 분이 많을 것이다.

돕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직접 가서 봉사할 수 없으니 매월 또는 일회성으로 금전을 보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우리 복지관에도 봉사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있다. 김창철이나 밀반찬지원을 위해 오시는 분들, 재능을 기부해주시는 분들과 사회봉사명령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다. 모두 ‘봉사’라는 큰 틀 안에서 내방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보이지 않게 봉사하길 원하는 분들이었다. 그러나 요즘 자원봉사를 하기로 정해진 곳에 찾아가 지정해 준 일을 수동적으로 하고 한 일에 대한 증거를 기록하고 남겨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경우가 적지 않다.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분들과 그 ‘일’을 하는 분들의 표정과 움직임만 봐도 누가 자원봉사자인지 누가 일을 하러 온 건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 정도다. 물론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복지관을 방문해 주셨든 감사하고 도움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다.

자원봉사가 전문화되면서 직업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일례로 활동보조인과 요양보호사를 들 수 있다. 이런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인력들 덕분에 예전

에 비하면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삶의 질이 조금은 나아졌다. 활동보조인과 요양보호사들은 봉사가 아닌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직업인이지만 이들은 봉사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기에 그 손길 하나하나에 소중함을 느낀다.

우리 사회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 혜택도 실질적으로 복지관 같은 기관이나 장애인들이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확대될수록 예전에 만만 정직하고 진솔한 자원봉사자가 그리워질 때가 있다.

시간 제약 없이 장애인가정에 방문해 청소와 빨래를 해주시고 꾸준히 방문해 돌봐주시던 분들이 생각난다. 한겨울 눈도 녹지 않은 시골길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다녀주시던 분들, 장애인가정에서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담아주시는 음료를 세

상에 돌도 없는 맛인 양 별걱정 없이 기분 좋게 들이키던 분들이 떠오른다.

물론 지금도 미용실 문을 닫고 미용 봉사를 해주시거나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장애인들의 복지를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단어가 이어지고 또 이어질 것 같다.

요즘 방학이면 봉사활동인증시스템에 입력이 밀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러 찾아온다. 그러나 등 떠밀려오는 봉사에 채워야 할 시간이 되면 하던 일도 그대로 멈추고 가 버리는 봉사자들이 있다.

물론 ‘일’에서 ‘자원봉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관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일’로 방문했지만 그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유도하고 기억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심이어야 하고 우리가 참아야 한다. 이용자를 대하는 모습과 마음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진심으로 대한다면 우선 내가 기쁘고 이용자가 즐겁다. 또 복지관을 ‘일’로 방문한 사람들이 ‘자원봉사’의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복천규 관장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사진작가 : 김지연
장소 : 남해 금산 보리암